

황종연, 「신없는 자연-초기 이광수 문학에서의 과학」, 상허학보 36, 2012.10, 143-182.

1. 유교에서 과학으로

- 1) 1916년 와세다대학 철학과 입학년 때, 『매일신보』에 「동경잡신」에 국가의 부강함의 근원으로 교육의 의의 강조
 -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구 문명 보급 사업 칭송
- 2) 1910년대 이광수의 조선 문화 변혁의 공식 = 유교에서 과학으로, 윤리에서 물리로(146)
 - 유교는 경전과 시문 교육만을 장려했다고
 - “현대 문명은 과학의 문명, 현대 교육의 진수는 과학,.....그 중에도 자연과학이었다.”
- 3) 이광수가 1910년대에 이룩한 지적, 문학적 혁신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추구, 탈마법화라고 불리는 근대적인 방식의 세계 표상을 중요한 주제로 포함(147)

2. 지사와 신사의 변증법

- 1) 장편소설 『개척자』 해석 - 대한제국의 패망 이후, 과학이 조선인 대다수에게 극히 낯설고 괴상하고 경이롭게 여겨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 성재 : 화학자, 발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 생계조차 돌보지 않고 실험에 진력함
 - 전경 : 성재의 친구, 정치운동가로서 시련, 연민의 대상, 공상가
 - 이일우 : 동경의 어느 대학의 법과 출신, 변호사로 경성의 상류사회에 안착, 신사(영어 쟈틀먼의 번역어, 1910년대 조선 남성에게는 사회의 각 부문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학덕을 겸비한 남성)
 - 정념이 아니라 법리가, 운수가 아니라 제도가 지배하는 시대에 적응했지만 민족 엘리트에게 요구되는 양심과 사명은 결하고 있다.(이러한 해석이 이광수의 것인지, 연구자의 것인지 불분명함)
- 2) 과학자의 영웅화는 일본의 조선 통치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많은 적든 정치적이다. 그것은 식민지라는 조건과 타협하는 민족운동의 새로운 정통화를 암시한다.(148)
- 3) 과학자는 개화 조선이 1910년대까지 산출한 남성 엘리트 유형의 변증법적 지양 - 즉 지사와 신사의 종합이다. 과학자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개조를 도모하는 지사이자 민족의 이익에 대한 공헌을 통해 위표를 획득하는 신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의 출현은 조선민족의 갱생에 대한 약속처럼 보인다.(151)
- 4) 일본의 조선 병합 이후 조선인 엘리트 집단이 식민주의와 타협하면서 조선 사회의 자본주의화를 추구한 사태의 한 반영....『개척자』에서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회의는 가능하지 않았다.(152)

3. 과학하는 아이, 훑쳐보는 청년

- 1) 「새 아이」의 시 - 이광수가 상상한 신종족은 과학으로부터 인식과 행동의 힘을 얻는 인간이었다.
 - 제1련은 투시력 있는 시력, 제2련은 슬기로운 기술, 제3련은 명민한 마음, 제4련은 고상한 인격을...
- 2) 이광수의 청년은 과학의 힘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을 통치하는 사람이다. 그는 과학주의에 의해 발명된 만능 군주의 한 전형이다.(155)
- 3) 제1련의 시각중심적 비유 - 시각중심주의, 즉 인식에 있어서 시각을 다른 감각보다 우위에 두는 경향은 과학의 발전을 가져온 중요한 문화적 조건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156)
- 4) 자기현존(self-presence)의 증표, 철저히 남성적인 행위.(157)
- 5) 하이데거에 의하면 “근대의 근본적 사건은 세계를 상(像)으로서 정복한 것”, 즉 우주에서 주체의 눈앞에 놓이는 객체로 세계를 변환시킨 것이다.(156)

4. 기독교를 대체하는 진화론

- 1) 유교, 기독교, 과학 삼자의 각축으로 인한 혼란은 그가 20세기 초엽에 관찰한 조선사상의 현실이었다.(159)
- 2) 이광수에게 과학은 인간과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인간 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하는 현대적 방식을 의미.
 - => 과학정신, 과학은 현대의 종교
 - 특히, 생물학, 진화론의 관념을 현대사상의 원천. -> 진화론은 자연에 있어서 인간의 지위에 관한 생각을 일변(一變)시켰고 기독교를 비롯한 전통적인 인간 및 세계 이해 방식에 중대한 도전이 되었다.(160)

- 3) 『무정』에 대한 종래의 독해 - 근대 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어느 정도 기독교 신앙과의 결별을 포함하는가에 대해서는 주의가 부족.
 - 김장로 : 조선식 예수교, 천박한 종류의 서양 모방, 과학을 모르고 철학과 예술과 경제와 산업을 모름.
 - 영채 : 개인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고상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 옛날 한때 행세하던 사람도 급변하는 시세에 따라 가차없이 몰락하는 상황, 세상 어디에서나 우승열패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 기계적 우주와 자유로운 주체

- 1) 이광수는 신없는 자연이 인간에게 단지 비극적일 뿐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무정’한 것으로 보았으며 불가항력적인 생존 조건으로 수락하고, 그것이 강제하는 생존 경쟁을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경향(166)
- 2) 『개척자』 - 서울묘사 : 신, 정신, 도덕 등과 무관한 자연주의적, 기계론적 설명이 가능한 자연적 과정
 - 성재의 아버지 김 참서의 장례를 앞두고 전경의 김차서로 빙의하는 모습에 대해 성재는 광기 혹은 질병으로 간주
 - 종교적 삶이 종종 보이지만, 축출하는 방향으로 진화
 - 성순 : 교회를 다니지만 신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창조적인 능력과 휴머니즘적인 것을 믿음.
탈마법화된 세계에 대하여 상관적으로 존재하는 주체성, 즉 ‘자기정의적 주체성(self-defining subjectivity)’을 표현(172)

6. 과학과 문학 - 결론을 대신하여

- 1) 『무정』은 기독교가 우세한 조선인의 세계를 기독교적 해석을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있다. 다원주의적, 기계론적 철학자 헤겔(생물의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 영향을 받은 그 소설은 세계가 신의 섭리가 아니라 진화의 법칙에 따르고 있음...『개척자』에서도 신적, 초월적, 초자연적 세력이 사라진, 기계적, 자연적 원인에 따라 작동하는 세계의 이미지가 분명하다.(173)
- 2) 『개척자』의 ‘성순’의 자살 - 사회의 도덕적 관습에 대항하여 윤리상으로 자주적인 그녀의 자아를 발명하는 행위.
 - 죽음의 나라에서 성순의 마음 : 비참한 종결에 대한 직관 -> 탈마법화된 세계의 인간이 죽음에 임해 ‘무의미성’에 대한 각성
 - ‘민’ - 성순을 잃은 비통한 심정을 격양된 어조로 토로한 끝에 사랑의 불멸성에 대한 믿음.
- 3) 초기 이광수는 인간 사회 속에서 생존경쟁이라는 자연 현상을 관찰한 한편, 인간 생활을 동물의 생활과 구별되게 하는 마음의 기능에 주목했다. 그 마음의 기능 = ‘정’
 - 정의 요구가 충족된 세계는 인간이 마치 자신의 집처럼 느끼는 세계이고, 인간의 의도와 목적이 응답을 얻는 세계이며, 개인들이 갈등과 적대를 넘어 공동체적 일체성을 달성한 세계이다. 이광수는 한국에서 근대적 문헌론의 효시를 이룬 글에서 문학이란 “정의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문학은 뉴튼적, 다원적 세계를 배경으로 인간 생존을 묘사하는 동시에 그 세계에 대해 소원한 인간의 미움을 기록한다.
- 4) 초기 이광수의 작품을 기점으로 한국 문학은 과학에 대하여 충정과 반심을 함께 가지기 시작했다.(176)

<토론을 위하여>

이광수가 두 작품을 통해서 조선이 문명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정신으로 개조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순’의 자살을 통해서 과학정신이 전통의 가치를 탈마법화하여 자기 존재의 주체성을 제공하지만, ‘무정’한 세계일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황교수는 지적한 듯싶다. 1910년대 자연과학이 탈전통적 이념을 생산해내는데 기여를 했지만, 신이 없는 곳(자연)에 황교수가 지적하듯 이광수는 ‘정의 만족’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는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사물들의 총화로, 지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물질의 영역으로, 인간의 욕망 충족에 유용한 각종 자원들의 집괴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계화되고 물질화된 세계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자기의 정체를 알고자 한다면, 윤리적으로 옳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개인은 이제 계시나 법열을 구하는 대신에 그 자신의 이성에 따라야 한다.”(170)라고 하는 것과 ‘정의 만족’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일까? 과학정신의 냉혹한 자연 세계의 차거움을 극복하는 대안이 ‘정의 만족’이라면 이것은 근대 정신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과학정신의 공백 혹은 결여의 속성인가? 그렇다면 ‘과학정신’과 ‘정’은 상반된 가치인가, 아니면 상보적인 관계인가? 또한 ‘정의 만족’은 인간의 삶의 목적과 윤리를 잡아주는가?